

# 백제왕도 품격 높여 '세계 역사도시' 도약

익산시, 문화유산 청사진 제시... 핵심 유적 보존·체험 콘텐츠 확대

익산시가 2026년을 '백제왕도 세계유산도시'의 가치를 완성하고 미래로 도약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 시는 핵심 유적의 고품격 보존·관리의 함께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를 대폭 확대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백제문화교육장은 4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익산 문화유산 청사진'을 발표했다.

먼저 백제왕도 핵심 유적인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익산무왕릉(성릉) 등의 보존 관리 체계를 강화한다.

국내 유일의 백제 정원을 실제 크기로 재현하는 '백제왕궁 정원 조성사업'이 올해 중순 마무리돼 고품격 백제문화의 산 교육장이자 관광 자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하반기 착공하는 '미륵사 정보센터'는 발굴·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전달하는 거점 공간으로 2028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고도보존 및 유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한옥과 담장 정비, 가로경관 개선 등 고도(古都) 경관 회복에도 박차를 가한다.

특히 백제왕궁 금마저 역사문화공간은 올해 발굴조사와 설계를 통해 백제왕궁의 밑그림을 완성하고, 익산 백제문화의 가치를 공유하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역사적 근거를 공고히 하기 위한 학술 연구와 국제 교류도 강화한다. 백제 무왕의 익산 천도를 기록한 유일한 사료인 일본 '관세음승합기' 특별 전시를 추진해 왕도의 위상을 재조명한다.

또한 마한역사문화권 연구의 일환으로 황등제 제방 발굴 조사를 실시해 마한문화와의 연관성을 밝혀내고 역사적 정체성을 확립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오금산성·미륵산성 학술 발굴조사 등을 통해 연구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장한다.

체험형 콘텐츠는 더욱 풍성해진다. 오는 4월 '익산백제 국가유산 아행'은 행사 공간을 금마 일원까지 넓혀 지역 연계형 축제로 치러지며,

9월 '미륵사지 미디어아트'는 무대를 미륵사지 전역으로 확대해 현대적 감각의 빛과 음악으로 백제의 미학을 재해석한다.

시는 백제 역사의 중심지 금마리와 근대 역사를 품은 송림마을을 연계해 보고 즐기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을 강화한다. 지난 5년간의 문화도시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는 '일상 속 문화도시' 모델을 완성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무형유산 전수교육과 공개행사를 정례화해 시민들이 무형유산을 느끼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 밖에도 마한문화의 역사 정체성 확립을 위한 마한문화대전, 익산의 근대문화유산을 즐기는 생생국가유산사업, 이병기 생가에서 만나는 고객 종가 집 활용사업, 세계유산 활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익산의 역사와 이야기를 만나 볼 수 있다.

백석희 국장은 "2026년은 그동안 쌓아온 성과를 결실로 맺고 세계유산 고도 익산의 미래를 여는 중요한 해"라며 "백제왕도의 진정성을 지키면서도 시민과 미래 세대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역사문화도시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훈 기자

# 제29회 옷칠 목공예대전, '대통령상' 승격

남원시, 운영 공정성·전문문화 계승 필요성·현대 예술 가치 인정받아

남원시가 주최하고 남원목공예협회가 주관하는 제29회 대한민국 옷칠 목공예대전(이하 옷칠 대전)이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 문화로서의 계승 필요성 및 현대 예술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최고 훈격 '대통령상'으로 승격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공예 분야로는 최초의 사례로 공예 분야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과 국가유산청에서 주최하는 대한민국전승공예대전이 유일한 대통령상 훈격 공모전이었으나, 이번 옷칠 대전이 대통령상 승격에 따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목공예 분야로 위상을 높게 되었으며, 현재 옷칠 문화는 한국을 넘어 동아시아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그 가치와 예술성을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대한민국이라는 명칭과 대통령상 격상을 계기로 옷칠 목공예분야의 권위와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고 지역을 상징하는 문화예술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K-공예문화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대통령상' 훈격에 걸맞게 대상의 시상금을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증액하여 대한민국 공예 분야 최고 수준의 상금을 시상한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는 홈페이지를 통해 옷칠 대전 사전 홍보를 시작하였으며, 접수 대상은 옷칠 목공예, 같이 공예 2개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4월 3일부터 5일까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출품 원서를 내려받아 작품과 함께 남원시청 강당이나 서울 남원장학숙(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봉로23길 13-6)에 출품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문화예술과(063-620-6672)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 안녕·풍요 기원·완주만의 공동체 문화 확산

'완주 정월대보름 한마당' 성료

완주문화재단(이사장 유희태)이 주관한 '2026 완주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완주군 둔산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는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가족 단위 군민과 지역 예술단체 등 2만여 명이 참여하는 완주 대표 공동체 축제로서의 면모를 과시했다.

축제 첫날인 28일은 '정월대보름 함께 비는 날'을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오전 11시 농악단의 지신밟기와 강강술래로 축제의 포문을 열었으며, 오후에는 저글링, 풍선쇼 등 어린이들을 위한 공연과 청소년들을 위한 K-팝 플래시몹이 진행되어 전 세대의 호응을 얻었다.

이날 오후 6시에는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개막식 및 달집태우기 점등식이 거행됐다. 달집태우기를 통해 한 해 무사안녕을 기원했으며, 이어지는 김해정, 런파이프, 안예은의 축하 공연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완주의 밤하늘을 수놓으며 축제 분위기를 절정에 달하게 했다.

행사 이틀째인 1일에는 '제 1회 완주 고고장구(난타) 페스티벌'이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 완주군 13개 읍·면을 대표하는 고고장구 및 난타팀들이 모여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뽐내며 신명 나는 무대를 선보였다.

행사장 곳곳에서는 정월대보름의 의미를 되



완주문화재단이 주관한 '2026 완주 정월대보름 한마당'이 지난 2월 28일부터 3월 1일까지 이틀간 완주군 둔산공원 일대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새길 수 있는 전통문화행사가 다채롭게 펼쳐졌다. 지신밟기와 강강술래를 비롯해 소원 엮기, 부럼 나눔, 달집 태우기 등 세시풍속 프로그램이 진행되며 방문객들에게 한 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시간을 제공했다.

또한 20여 개의 전통놀이 및 체험부스가 운영되어 남녀노소 누구나 우리 고유의 놀이문

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이와 함께 완주군 어린이집 연합회가 협력해 다양한 먹거리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였으며, 106 여단 군부대의 정비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어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했다.

/완주=염재복 기자

# 완주난우회, '한국춘란 전시회' 7~8일 개최

봄의 전령사 한국춘란 전시회가 오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다목적관에서 열린다. 전시회는 완주생활문화동우회 주최, 완주난우회가 주관한다.

이번 전시회는 자생란의 보고인 전북지역에서 희귀종 한국춘란을 채집해 집에서 정성껏 재배해 온 완주난우회 회원들이 난이 주는 아름다움과 이로움을 느껴보는 의미 있고 소중한 시간을 마련했다.

특히 여유를 누릴 시간도 없는 현대인들이 자연을 동경하고 자연과 함께 조화로운 삶이



이뤄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시회를 준비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과 함께 난문화를 통한 행복지수를 높이고자 행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완주=염재복 기자

# 김제시,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 참여 작가 공모

김제시는 2026년 '이동형 거리미술관 사업'을 위해 참여 작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 기간은 지난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이며, 시각분야 예술가 총 6팀(개인 또는 단체)을 선정해 30일 간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창작 지원금 200만원을 지원한다.

자격 요건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지 또는 작업실을 두고 있는 작가이며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 작가에 한해 전북특별자치도



로 거주지 제한 요건을 완화, 모집한다. /김제=곽도태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유산

# 춘향전의 무대

##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괄난 항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더하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